

만화로 보는 '명상 주역 에세이'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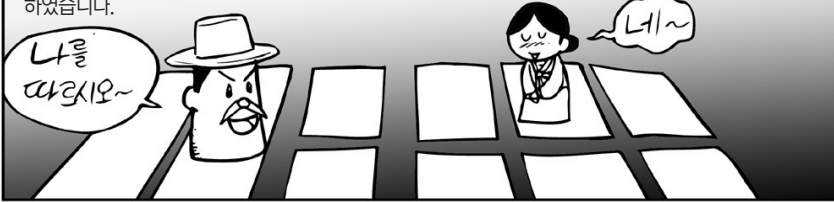
풍지관 (風地觀) 3



관괘(觀卦) 두 번째 효인 육이의 효사는 '옛보는 것이니 여자가 꿈은 것과 같이 하면 이롭다. 상에 이르기를 규관여정은 또한 가히 추하다(六二 關利女貞 象曰關觀女貞 亦可醜也)'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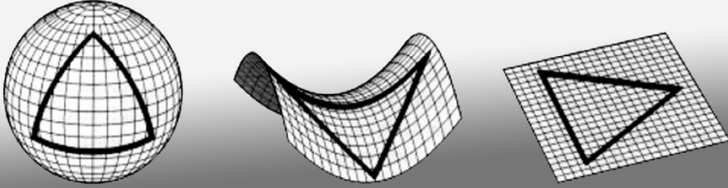
주자(朱子)는 이에 대해, 부드러운 음(六二)이 안에서(下卦는 內卦이므로) 바라보는 것이 규관(關觀)의 모습이니, 육이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바깥의 구오(九五)를 순종하고 따르는 여자의 입장이라면 정도(正道)라 할 수 있으나, 나라 전체를 보아야 하는 강한 양(陽)에게는 추(醜)한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규(關)라는 것은 하나의 틀 안에서 문(門)을 조금 열고 그 틈을 통해 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는 열린 체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닫힌 체계 안에서 자기기준의 좌표를 가지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좁고 편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논리와 과학적 사고는 하나의 기준이나 가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고가 닫고 서있을 땅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논리학의 꽃이라 할 유클리드 기하학은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하나 밖에 없다'는 등과 같은 공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보요이와 로바체프스키에 의해 깨졌는데, 그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휘어지지 않는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가정했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직선, 평면, 공간이 모두 휘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클리드계 공간을 휘어지지 않는다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전제를 통해 사소한 것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하나의 틀 안에서 사물과 세상을 보는 것이 규(規)입니다. 즉, 닫힌 체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다양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폐쇄된 실험실이라는 닫힌 세계 속에서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살아있거나 열린 세계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뇌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밝혀낼 것이라며 과학계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뇌라는 틀' 안에서 마음과 의식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규관(規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식은 감각적 대상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으며 환경과의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다행히도 의식이 관계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알바노에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학자인데 “의식은 뇌가 혼자 힘으로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의식은 뇌, 몸, 세계의 공동작전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예로 그는 우울증을 '뇌의 병'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현대 신경과학의 좁은 소견을 질타하며 우울증에 신경적 징후들이 있고, 약물요법의 형태로 뇌에 직접 조치를 취하면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용어들만으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우울증은 실생활의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열린 전체 세계 속의 부분일 뿐입니다. 뇌 속 신경계는 끊임없이 감각자극을 통해 소위 외부세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뇌는 그 자체로 폐쇄된 닫힌 세계가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우울증은 '뇌'라는 닫힌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의식'이라는 현상도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이는 닫힌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앉아서 사물을 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작은 방 안에 앉아있지만 동시에 전 우주의 일부로서 완전한 세계의 한 부분을 반영하며 전체와의 교류 속에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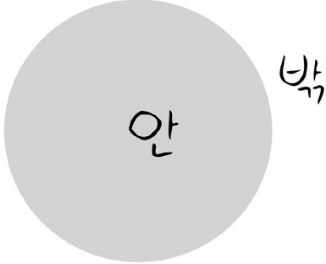


그렇다면 육이는 왜 좁은 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유지하는 데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은 자기유지를 위한 중심으로 향합니다. 비록 육이도 뜻을 사용하기는 하나 구오(九五)와 달리 그는 내부로 향합니다.



그것이 더 넓고 크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규관(關) 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전체를 보아야 하는 양(陽)에게는 추(醜)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안이 없는 이는 밖도 공허합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시작해 밖을 향합니다. 안이 준비되지 않으면 밖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규방의 여인이 자신의 집안을 잘 견사할 때 남편은 외부의 일을 잘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을 위한 일일 때는 정도(正道)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전체를 위한 때가 옵니다. 이때는 자신만을 유지하려는 뜻이 추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뜻을 펼칠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밖으로만 향할 때는 헛된 노력이기 쉽습니다. 이때 안으로 향하는 구심적 사고인 직관을 사옹하면 드디어 세상을 돕는 위대한 구오(九五)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직관은 왜 구심적일까요? 왜 중심점이 없는 이에게는 직관이 솟아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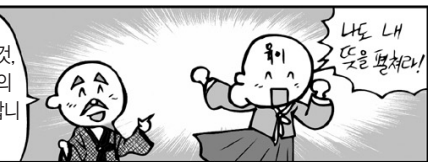
심층의 직관적인 지혜는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이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듯이 무언가를 이루려는 뜻이 없는 이에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직관(直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뜻'이 바로 내면을 향한 하나의 '질문'이 되고 질문을 받은 거대한 심층의식은 '직관'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에 '의문'을 가졌을 때 심층은 꿈을 통해 이중나선이라는 직관의 '답'을 준 것이며, 대혜종교 선사가 의식의 근본에 '의문'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있었기에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뜻'이라는 구심점은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 뜻이 바로 육이가 가진 정도(正道)입니다. 뜻을 갖는 것, 그것은 정도(正道)에 해당하고, 뜻을 펼치는 것, 그것은 구오(九五)의 역량이 해당합니다. 육이는 자신의 '뜻'을 간직하려하지만 말고 그것을 펼쳐내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규관(規觀)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